

전북교육청, 수능 유의사항 발표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입실 본인 수험표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17일 2017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앞두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정리해본다.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이 있어야

한다.

인화한 사진(1매)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관리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시험당일 유의사항 안내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격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

험표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후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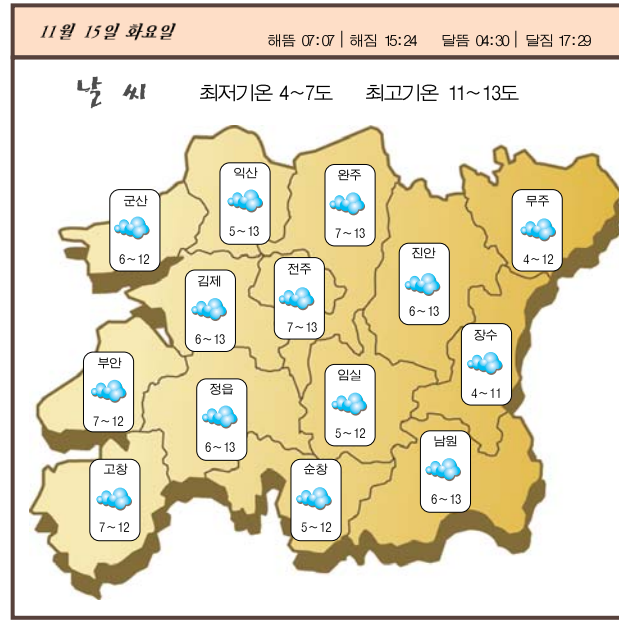
또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아울러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MP3 플레이어·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고민형기자



국립대병원장 겸직교수 교비지원 공동 대응

국립대병원장회의, 겸직교수 인건비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과 엄연히 구분돼야" 주장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병원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지원 연구비) 지급을 원소속인 대학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모으고 이 문제를 공동 대응기로 했다.

2016년도 제5차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가 지난 11월 12일 이틀간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이 참석해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 지급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문제는 최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로, 원소속 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단순히 지급채만 비우고 지급총액은 변함없다는 생각



막춰라 **한일군사협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가처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 양측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처분할 예정이다.

으로 병원에 연구비 부담을 강요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교수들의 자부심과 자존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

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택립 국립대학교병원협의회장은 "국립대학병원설

/김영재기자

전북대병원, 암 예방 구연동화 ·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병제) 전북지역암센터가 소아·청소년의 암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암예방 구연동화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지난 9일 전주 삼성어린이집과 부영사랑어린이집을 찾아 3세에서 7세 이하의 소아 100여명을 대상으로 암예방 구연동화를 실시했다.

이번 구연동화는 암을 이해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아에게 구연동화를 통해 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생활습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소아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여울초등학교에서 암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암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여울초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암예방수칙 동영상을 통한 암예방 생활습관 인식개선 교육과 조별로 임관된 O X 퀴즈게임을 통해 암관련 지식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재기자

수능 당일 전주 이지콜 택시 무료 운행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6시부터 이지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험생 및 이지콜 고객으로 자녀가 수험생인 경우 이지콜 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입수능시험 당일 교통정체로 인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자칫 수년간 준비해온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교통약자 수험생 및 보호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지콜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수능수험생에게 합격기원 선물도 준비하여 시험당일 아침 수험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능시험일 무료운행 행사는 이지콜을 이용하는 수험생이

거나 이용고객의 자녀가 수험생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고시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271-2727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콜은 지난해 8월 37대로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45대의 차량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하루평균 300여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등 전주시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공단 김신 이사장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이지콜을 이용해 편안히 고시장에 도착하고, 시험도 잘 봐서 꼭 원하는 곳에 입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